

유황오리 사육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김사장은 생산비가 높은 것을 가장 큰 과제로 제시했다. 즉 3개월간 일반사료를 이용하여 오리를 사육한 이후 보리밥에 유황을 섞어 6개월간 사육하다보니 생산비가 6-7만원 많게는 10만원만에 달한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유황오리 사육의 현주소

유황오리 사육의 역사

국내 유황오리 사육이 일반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92년에 타개한 인산 김일훈옹이 80년대 오리, 죽염, 쑥 등에 의한 민약으로써의 효능을 일반에게 알리면서 부터로 추정된다.

90년대 발행된 신약에는 유황을 먹인 오리의 약효 및 효능, 사육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당시 인산 김일훈옹이 거쳐한 경남 함양군 삼봉산 기술에 자리한 인산농장에서 오리에 유황을 먹여 사육하는 것이 일반에게 알려지면서 유황오리 사육의 근간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농업기술 연구 및 보급기관인 정선군 농촌지도소 현 정선군 농업기술센터가 이를 기초로 유황오리 사육에 대한 연구를 지난 93년 시작하여 농가에 사육기술을 보급하기도 하였다.

또 지난 98년에는 축산기술연구소 종축개량부가 국책연구과제로 선택하여 2년간 유황오리 사육에 대한 연구가 이뤄졌으며 민간차원에서는 96년도 혜성유황오리가 이를 사육체계화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밖에도 민간차원에서 유황오리를 사육하여 상품화한 농장이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약용 유황오리 사육 실태

일반적으로 유황오리 사육은 상품판매 목적에 따라 크게 두가지 형태로 구분 사육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 첫째는 유황오리 고기를 이용할 목적으로 사육하는 형태와 약용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사육하는 형태가 그것이다.

약용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사육되는 유황오리는 대부분 인산 김일훈옹이 신약에서 소개한 사육방식에 의해 농장자체적으로 사육기술을 터득하여 사육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김일훈 옹이 약제를 이용할 목적으로 사육하는 유황오리는 식힌 보리밥에 유황을 섞여 먹이며 오리가 피땀을 싸는 수가 있는데 그때는 양을 줄이고 차차 늘려가면 된다고 소개하고 있으며 중오리에 유황을 먹여 키우면 6개월후 약성이 구비된다고 밝히고 있다.

정선군 농업기술센터의 지도를 받아 유황오리 1천5백수를 사육하고 있는 정선의 유황오리 한 사육농장은 개량청둥오리(토종오리)를 이용하여 약용으로 이용되는 유황오리를 생산하고 있었다.

이 농장은 약용으로 사육되는 유황오리의 정확한 사육관리 기술을 나름대로의 노하우로 알

지금까지 약용 유향오리만을 생산해온 오사장은 처음 유향오리 사육당시 많은 폐사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현재는 나름대로의 사육관리 방식으로 폐사는 걱정하지 않으나 생산된 유향오리의 판매처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오사장의 약용 유향오리 사육방식은 자연상태의 유향을 토종오리 입추후 3개월령부터 황토 및 톱밥등 여러 가지 사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재료를 유향과 함께 혼합하여 6개월이상 급여하고 있다.

려줄 수 없다고 하였으나 사육기술의 큰 틀은 3-4개월령된 성숙된 오리에 보리밥과 여러 가지 다른 사료를 섞어 급여하며 6개월가량 이 유향오리 사료를 급여하여 약용유향오리로 출하한다고 밝혔다. 93년 처음 유향오리 사육을 시작한 이농장 김태구 사장은 당시 유향오리 사육시 80-90%까지 폐사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으나 나름대로의 사육관리방식의 터득으로 지금은 80%정도 출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유향오리 사육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김사장은 생산비가 높은 것을 가장 큰 과제로 제시했다. 즉 3개월간 일반사료를 이용하여 오리를 사육한 이후 보리밥에 유향을 섞여 6개월간 사육하다보니 생산비가 6-7만원 많게는 10만원선에 달한다는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반해 유향오리 판매가격은 개인에게는 10-15만원선에 판매하는데 반해 생약농협과 계약판매시 7만원선에 납품하여 생산비 보전도 힘든 상태라는게 김사장의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김사장은 현재의 유향오리 사육수수를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줄일 계획임을 밝혔다.

경기도 송탄에서 약용유향오리를 사육하고 있는 오의권사장은 5천수내외의 토종유향오리를 사육하고 있다. 유향오리 사육경력이 8년차

에 들어선 오사장은 유향오리 사육 및 약효 효능등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까지 약용 유향오리만을 생산해온 오사장은 처음 유향오리 사육당시 많은 폐사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현재는 나름대로의 사육관리 방식으로 폐사는 걱정하지 않으나 생산된 유향오리의 판매처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오사장의 약용유향오리 사육방식은 자연상태의 유향을 토종오리 입추후 3개월령부터 황토 및 톱밥등 여러 가지 사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재료를 유향과 함께 혼합하여 6개월이상 급여하고 있다. 현재 사육중인 유향오리는 대부분이 산란중에 있으며 유향을 급여한지 1년이 넘는 오리라고 밝혔다. 오사장은 자연상태의 유향을 사료에 1-2% 섞어서 급여하는데 많은량을 첨가하는 경우 십중팔구 다량의 폐사가 일어나며 다량의 유향을 급여하는데 폐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유향을 법제한 유향으로 약효의 효능이 없다고 단정한다.

이같은 이유로 자연상태의 유향을 암모니아 처리하면 유향내에 들어있는 비소성분이 모두 분해되어 해가 전혀 없는 유향이 되고 이를 먹은 유향오리의 약효성은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육용 유향오리 사육실태

이에 반해 고기를 이용할 목적으로 사육중인 유향오리는 일반배합사료에 유향을 미량으로 첨가하여 육추기간이 끝난 다음부터 유향을 급여하기 시작하여 50-60일령에 출하하여 육용 유향오리고기로 이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로 분석되고 있다.

육용 유향오리 사육의 대표적인 생산업체인 전라북도의 혜성유향오리는 유향오리 사료를 자체 개발하여 특허를 받아 사료생산공장과 유향오리 사료를 주문생산하여 유향오리를 사육하고 있다.

혜성유향오리 사육관련 담당자에 따르면 혜성유향오리의 사육과정은 육추기간중에는 일반 배합사료인 크럼블 어린오리사료를 급여하고 육성기부터 유향이 첨가된 사료를 급여하여 55-60일령 까지 유향오리사료를 급여하여 혜성 유향오리가 생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혜성유향오리는 자체사육농장도 있으나 유향오리 생산량의 거의 대부분이 계열화 사업에 의한 위탁사육형태로 생산이 이뤄진다는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혜성유향오리는 이같은 사육방식으로 매월 10만수내외의 유향오리를 생산하여 지역별 사업소를 통하여 유향오리 고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추후 생산사육량을 늘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산된 혜성유향오리는 평균 출하가격이 일반오리의 15-20% 높은 가격이고 사육

농장의 소득역시 높다는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즉 위탁농장의 유향오리 사육에 따른 위탁사육 수수료가 수당 최소 1천원에 달하며 오리 사육 적기인 봄철과 가을철은 사육농장 대부분이 성과급 혜택을 받아 수당 1천4백원-1천5백원선에 이르러 일반 육용오리 위탁사육농장에 비해 높은 소득이 보장된다는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유향오리를 개별사육하고 전복의 한 사육농장역시 주당 1천5백수의 오리를 유향사료를 첨가하여 사육하고 있다. 이 농장 역시 유향에다 여러 가지를 첨가한 유향을 사료회사에 갖다주고 일반오리 사료에 이를 첨가시켜 주도록 유향오리 사료를 주문생산하여 급여하고 있다.

이 농장 관계자 역시 생산된 오리는 유향오리로 판매하고 있으나 판매시 일반오리와 마찬가지로 가격으로 출하시킨다는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유향오리 사육시의 생산된 오리의 장점에 대하여 본인은 잘 모르나 유통업자들의 반응이 낚시가 없고 육질이 다소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급여시 육성율의 차이는 초기에는 있으나 47일령 내외서는 일반오리와 큰 차이가 없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유향오리 사육의 발전방향

현재 유향오리 사육농장들의 고충을 들여보면 사육관리상의 문제는 경험에 의한 사육방식을 나름대로 터득하여 약용으로 사육하는 농장이거나 육용으로 유향오리를 사육하는 농장이었던 간에 사육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

러나고 있다.

그러나 약용으로 사육하는 농장의 경우 사육기간이 긴데 따른 생산비의 과다문제와 출하가격이 턱없이 낮아 원래 사육목적인 부가가치를 높이기보다 오랜사육에 따른 적자를 면치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관련한 문제는 결국 유향을 많이 먹여 오래사육한 유향오리에 대한 품질기준이나 효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기준으로 판매시 높은 가격이 보장되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육에 올바른 유향오리 사육에 따른 보상이 이뤄지는 체계의 정립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유향오리의 효능이 주장자들의 주장대로 질병치료 및 건강을 증진하는데 뛰어난 효능이 있다고 한다면 이를 생산하는 농장은 제대로된 유향오리를 사육하는 프로그램에 의해 사육하고 이를 기준으로 판매가격을 보장받아 일반오리 사육에 비해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육용으로 판매되는 유향오리의 경우는 일반적인 사육업체 및 유통업자, 소비자들의 반응이 오리고기 특유의 냄새가 없고 육질이 좋아진다는 평이고 보면 사육업체는 이를 잘 활용하여 국내 육용오리와 수입육과의 차별화하는데 이를 이용한다면 국내 오리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하여 1999년 축산기술연구사업보고를 한 연구책임자는 「유향오리 사육은 오리사

육업체가 방향을 잘 정립하여 사육을 체계화한다면 육용오리 생산비를 줄이면서 건강을 중시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높여 수입육과의 차별화에 의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이유로 유향오리는 한방에서 우리몸의 독을 해독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질병 치료에도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으로 널리 퍼져있고 사육측면에서는 소량을 첨가하면 오히려 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아무튼 오리사육업체에 유향오리 사육부분은 유향오리고기 소비의 확대로 오리사육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역시 매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유향오리에 대한 사육업체의 심도있는 방향정립에 의해 이를 사육하는 농가들이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자리잡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문규 사무국장>